

필요한 것은 무조건 승리...16강 기적 만든다

1무1패 탈락 위기 한국, 오늘 자정 운명의 포르투갈戰
손흥민·조규성·이강인·황희찬 등 공격라인 총공세 예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
탈락 위기에 몰린 한국 축구대표팀이 3일 오전 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

전을 치른다.
한국의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
1무1패로 조 3위에 자리한 한국은 포르투갈에 반드시 승리해야 ‘경우의 수’까지 따져 16강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당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비롯해 브루누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앙 펠릭스(아틀레티코 마드리

드) 등 호화 공격진을 보유한 포르투갈은 객관적 전력에서 넘기 어려운 벽이다.
다만 16강 진출을 확정된 포르투갈이 주전 다닐루 페레이라, 오타비우, 누누 멘데스 등 부상 선수를 한국전에서 쉬게 할 가능성이 있어 승부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맞서는 한국은 100%가 아닌 경기력으로 맞서야 한다.
공격 선봉 손흥민이 부상으로 잠정인 스피드를 살리지 못해 수비 공략에 애를 먹고 있고, ‘수비의 핵심’ 김민재는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조차 불투명하다. ‘열린

데 났진 격’으로 가나전에서 주심에게 거세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한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어 경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벤투 감독은 “우리는 강팀을 상대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해왔다”며 “마지막까지 도전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선수들도 ‘해보자, 해보자, 후회 없이’라는 분위기 속에 결전 준비를 마쳤다.
한국은 가나전 2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 조규성의 골 결정력에 희망을 건다.

조규성이 최전방 원톱으로 나서는 가운데, 중간 햄스트링 부상으로 신음하던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황희찬은 팀 훈련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미니게임까지 모두 소화하면서 포르투갈전 출격 기대감을 키웠다. 오른쪽 측면에는 나상호(서울)가 서고, 중앙에는 손흥민이 배치돼 최전방과 2선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의 선발 출전 여부도 한가닥 희망을 품게 하는 요인이다.
월드컵 본선 두 경기에서 실력을 입증한 이강인은 한 번의 패스로 경기 흐름을 바꾸

는 탁월한 능력을 가나전에서 보여줬다. 이강인이 선발로 투입된다면 플레이메이커 손흥민이 부담을 덜고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팀 훈련에서 이강인과 손흥민은 ‘한 조’로 밸런스 훈련을 해 동반 선발 출격 기대감을 키웠다.
한국 축구는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독일을 꺾는 이변을 연출한 바 있다.
러시아월드컵 독일전 승리가 ‘카잔의 기적’이었다면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오르는 ‘알라이안의 기적’도 결코 꿈만은 아니다. /박희종기자·연합뉴스

“사랑의 온도탑에 온기 불어넣어주세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개하는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이 시작된 가운데 1일 오전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캠페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위). 이날 오전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등 내빈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근기자·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희망2023 나눔캠페인’...市 48억·道 99억 목표

광주·전남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이 6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1일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과 전남도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나눔

금회장, 김영록 도지사, 김대중 도교육감, 서동욱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희망 메시지 전달 ▲캠페인 성공 첫 기부 전달 ▲성금 사용내역 보고 ▲나눔 이름이 사랑의열매 전달식 ▲희망 비행기 날리기 ▲사랑의 온도탑 점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면에 계속 /안재영기자

시멘트업체 문 닫고 금호타이어도 감산

●화물연대 파업 8일째

도시철도 2호선·광주천 정비 등 레미콘 타설 못해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도 가동 정지 임박 피해 확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 시멘트 업체가 문을 닫고 금호타이어도 원재료 부족에 생산량을 줄이는 등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품질 주유소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업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일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광주 관급 공사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광주천 정비공사·무등야구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레미콘 타설을 멈추고 다른 공정을 먼저 하고 있다.

원재료인 시멘트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 광주지역 레미콘 생산이 파업 이후 완전히 중단됐기 때문이다.

관급 공사를 포함해 상당수 건설 현장도 레미콘 타설을 못 하고 다른 비축 자재를 이용해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조차도 이번 주 이후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남 시멘트 업체 5곳도 파업 전 하루 평균 2만6천t 시멘트를 생산했으나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고 출하가 안 되자 저장 공간이 없어 생산을 멈췄다.

금호타이어도 천연고무 등 보유 원·부재료 부족과 제품 출하 등의 문제로 오는 7일까지 생산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공장은 하루 생산량을 3만3천본에서 2만본으로, 곡성공장은 3만2천본에서 2만7천본으로 줄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주말께는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원·부재료 반입과 제품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수출 제품 출하는 전면 중단됐다.

파업 장기화로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철강업체가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

지와 광양제철소 피해도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측과 협의해 긴급한 물량은 일부 운송하고 있지만, 대부분 물량은 그대로 공장 내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하루 운송량은 파업 이전 대비 8% 수준까지 폭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부터 일부 설비 가동 정지 등이 예상된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파업 여파로 석유 공급이 끊긴 주유소가 전국에 속속하는 가운데 정유사인 GS칼텍스의 운송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석유 출하장마다 화물연대 차들이 가로막고 있어 석유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남 소재 저유소 대부분도 파업 전보다 출하량이 대폭 줄었다.

여수의 한 저유소는 파업 전보다 하루 출하량이 90% 감소, 목포 한 저유소는 57.7% 감소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 실무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해 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사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정유업체 피해 현황과 대응안을 논의했다. /박선강·양지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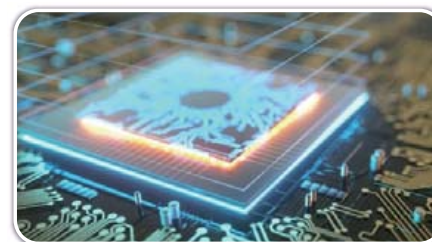
Today

유가족이 말한 진짜 책임자는? 4면
김경수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5면
옛 전남도청 기적·추모공간으로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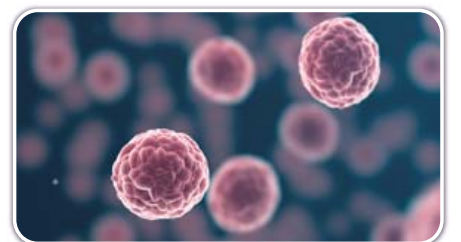
전남의 새로운 미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대한민국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레이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꿉니다



반도체
· EUV 광원, 미세가공



의료, 생명공학
· 소형 암 치료기



우주항공, 국방
· 특수 소재, 우주광통신



에너지
· 핵융합, 무선전력전송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은?

초고출력과 고에너지에 기반한 레이저를 활용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적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복합연구시설

전라남도
JeollaNamdo